

# 양계산업 새시대에 맞는 위상정립 필요



오 봉 국

- 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장
- 본회 상임고문
- 세계가금학회 아·태연합회장

'93 한국양계박람회가 지난 '91년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양계인은 물론 양계산업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서 몰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로 한국의 양계산업을 재정립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는 점차 개인의 활동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대처라는 연대의식이 절대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91한국양계박람회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습득도 많이 하였으나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양계산업의 위치를 재조명하여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시설확충에만 전념하는 일면도 있어서 다소의 생산과잉이 유발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소비의 저변확대를 위한 유통구

조개선에도 이제는 어느정도 투자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볼 때 양계인들이 조금만 합심을 한다면 고도의 발전이 따르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93한국양계박람회는 이 같은 점을 중시하여 생산기반확충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소비확대 방안제시, 양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제시는 물론 양계인들의 단합의 장으로 활용하여 경쟁력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93한국양계박람회를 통하여 양계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해 양계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수출산업화로의 도약까지 가능토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지게 됩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내에 동일장소(KOEX국제회의의실)에서 세계가금학회 아세아·태평양지역 제5차 학술대회가 함께 열리게 되어 국제수준의 학술이론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양계산업기술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체는 바로 양계인 여러분들입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유관기관, 단체를 비롯 관련 종사자 모든 분께서 빠짐 없는 참관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와 관련기관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한국양계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